

# 심포지엄 참관기

The Sectional Report of the 40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 여성위원회

### 녹색기술과 기술사의 관계



글 | 林 必 男  
(Lim, Pil Nam)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주)쌍용 C&T 과장

E-mail: pilnam2449@hanmail.net



▲한·일 여성기술사 단체사진

2010년 10월 16일 카이쿄멧세 시모노세키 901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한일 여성기술사 심포지엄은 2007년을 시작으로 제4회를 맞이하여, 「녹색 기술과 기술사의 관계」라는 테마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Yuki Hirose의 진행으로 먼저 일본 측 Iwakuma Maki 회장님 과 한국 측의 이효숙 고문의 인사말씀과 세미나에 참석한 양국 기술사의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일본 측은 회장님 포함 14명 참석자가 있었으며 한국 측은 9명 참석하였다.

양국 인사 소개 후에 2009년 양국 활동 보고의 시간을 가졌는데, 일본 측은 Iwakuma Maki 회장님 의해 NPO(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지난 1년간 실시한 부분별 4개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첫째,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둘째는 과학기술분야에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노력이

었다. 셋째는 해외여성기술사와 의견교환과 국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 넷째, 새로운 스타일의 도시계획을 위한 심포지엄 실시등의 주된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국 측은 기유경(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 의해 2009년 한국여성기술사의 주요 활동 보고 이루어 졌다.

현재까지 한국여성기술사 배출 인원은 약 700명으로, 상호간의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블로그(<http://cafe.daum.net/womenpe>)를 개설하여 약 70명이 활발한 활동 중으로 회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년 2차례이상 기술교류를 위한 워크샵을 계획중이며, 2010년 현재 3차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그 참석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외에도 여성기술사 수첩을 제작하여 여성 기술사회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양국의 2009년 활동 보고 후 일본 측의 치기라 미유키에 의해 “환경 공생 건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시작 되었다

일본은 애도시대 이후 산업이 고도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일본은 심각한 환경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배려한 건축 설계”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일환으로 CASBEE(건축물 종합 환경 성능 평가 시스템)라는 종합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환경 품질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은 이지형(수질관리) 기술사의 “자연과 인간의 공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70년대부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 보고인 습지와 자연 초지의 개발로 인한 철새들의 격감, 낙동강 중 상류로부터 각종 비점오염원의 유입, 양안 고수부지에서 무단 경작(비닐하우스) 등으로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자연생태 환경 훼손을 막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하천변 조성방안, 하천과 고수부지의 효율적 관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천생태공간으로 복원사업에 대한 방안과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양국의 세미나 도중, 발표 내용에 대해 열띤 질의 토론시간을 가진후, 일본 측 Yamamoto Yoshiko에 의해 종이접기 시간과 양측의 선물

교환 시간을 가졌다. 일본은 시모세키의 상징인 북어 핸드폰 고리를 한국 측은 안영례(의류) 기술사가 직접 만든 한국 전통 문향이 있는 핸드폰 고리 교환이 있었다. 이외도 한일 여성기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양측 여성기술사들은 정성을 다해 설문조사에 응해 주었다.

모든 일정이 18시를 기점으로 마무리 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카이교멧세 29층 시가텐(토키)전망대로 향했다. 시모노세키 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저녁식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지는 우정과 국경을 넘어선 여성기술사들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처음으로 한일 여성 기술사 심포지엄을 참가한 필자는 처음 만난 그들과의 언어장벽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친근하게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여성기술사라는 공통점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여성 기술사라는 매개체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공유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고 다짐했다.

내년 대구에서의 재회에 대한 또 다른 설례임을 간직한 채, 깊어가는 시모노세키의 첫날 밤을 마무리 하였다.

(원고접수일 2010년 11월 23일)